

후보자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비전선포식 개최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이 온 국민의 마음에 닿기를 기원”

- 21일 국회 본청서 이재명 후보자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비전선포식 열려
- 평화번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전 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산하 6개 위원회·1실 구성
- 예비역 대장, 전 정부 관료, 시민단체 소속 및 교수진 등 포함되어 한반도 정책 분야 최고 전문성 갖춰
- 이재명 후보, 축사를 통해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상과 남북 상호의 호응과 신뢰 속에서 관계의 진전을 이루어가야 한다” 고 강조

21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의 비전선포식이 개최되었다.

평화번영위원회는 국방·안보·평화·통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관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이재명 후보자의 직속 위원회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평화번영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산하에는 6개 위원회와 1실이 조직되어 있다.

국방정책위원회는 김병주 의원과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마트강군위원회는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이끌고 있다. 또한 평화협력위원회는 이용선 의원과 이관세 전 통일부차관,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소속되어 위원장을 맡았다. 김홍걸 의원은 한반도4.0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안보위원회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끌고 있으며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와 안보상황실도 포함되어 있다.

전 육군 대장 및 장·차관급 정부 관료, 시민단체 리더와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외교, 안보, 통일을 망라하는 한반도 정책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평화변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위원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공약개발 및 발표, 조직 확장, 유튜브 홍보 등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소확행 공약 개발 등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상을 강조하며 “남북 상호의 호응과 신뢰 속에서 관계의 진전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평화변영위원회는 한반도 정책 분야에서 최고 전문성과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로 구성된 직속 위원회”라며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지속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평화변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위원회별 활동을 점검했고,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통일 분과의 계획을 공유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나누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구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대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끝)

2021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변영위원회